

인화된 자연은 생존이라는 기준에 의해 자발적으로 변이를 판별하여 이를 선택한다. 이와 같이 적합성의 기준을 의인화된 선택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다윈은 그 난점과 직접 부딪치지 않고 다음 논의로 우회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의인화된 자연은 다름아닌 사육가의 한 모형이며, 자연선택은 자연에 투사된 사육가의 선택행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육세계가 자연선택이론에 얼마나 깊숙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육가의 작업은 생물의 변이과정을 해석하는 다윈의 시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이러한 해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J.F. Cornell은 그의 논문 “Analogy and Technology in Darwin’s Vision of Nature”에서 사육가의 작업이 인위적 조작에 의해 자연을 변화시키는 기술(technology)의 한 형태임을 중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다윈이 인공적 행위(사육가의 선택행위)를 [통해] 자연을 재해석하게 될 때 그러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조작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해석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윈에게 있어 종의 변화는 더 이상 생물자체의 내부적 성향——자발적 적응——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었으며, 반대로 외부의 생태학적 요인들——생존경쟁, 지리적 격리 등——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변화로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종은 생물과 분리된 어떤 외부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선택이론의 중요성은 단순히 진화라는 하나의 생물현상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설명했다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무기적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생명현상까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이해되고 조작되는 전혀 새로운 자연관을 태동시킨 혁명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대 생물학의 유전자조작에서 그 한 극단을 본다. 자연선택은

이러한 자연관의 한 표현인 것이다.

거북선의 발명자 문제

前 서울大 南 天 祐

나는 「거북선 구조에 대한 재검토」(『역사학보』 제71호, 1976년 9월)라는 논문을 통해 이미 거북선의 구조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밝혔으며, 그밖에도 거북선과 板屋般은 기본구조가 동일하다는 점과, 거북선이란 板屋般의 甲板 주위에 있는 防牌 대신에 다만 덮개를 씌운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위치에서 사격하는 적으로부터 甲板을 보호한 것 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造船工學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북선은 板屋般의 改造品에 지나지 않으나, 임진왜란에 있어서의 거북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거북선은 지금까지 특수한 軍般으로 여겨져 왔으며, 따라서 위대한 發明品이라고 잘못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近年에 이르러 거북선의 발명자는 누구일가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로서 “羅大用 거북선 발명說”이 거의 定說化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거북선을 예컨대 잠수함과도 같은 특수 軍般이라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발명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며, 그 발명자로서는 군인경력만을 가진 李舜臣이 아니라 造船경험이 많은 어떤 다른 사람일 것으로 여겨지게 되며, 그러한 조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羅大用이다.

羅大用이 거북선 발명자처럼 보이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들이 作成된 年代의 순서대로 적으면,

1. 1606년의 소위 羅大用의 上疏文
2. 그 다음해에 내린 것으로 보이는 宣祖의 敎書
3. 후에 그 敎書가 羅大用의 고향인 羅州牧志에 약간 잘못된 내용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이 후에 또다시 忠武公全書附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임진왜란이 끝난 후의 기록들이다. 첫번째의 것(上疏文)이 왜란이 끝나고 8년이 경과된 후의 기록이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임진왜란 때에는 李舜臣의 軍官으로서 戰船을 監造하고 많은 海戰에 참가하여 首功을 세웠으며, 이름이 조정에게 알려지게 되어 康津縣監, 金溝縣令, 綾城縣令, 固城縣令 등에 제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601年 母親喪을 당하고, 또 연이어 父親상을 당하게 되어 6年 동안이나 관직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직에 복귀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므로 ‘一得之策’에 대하여 이 上疏文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2. 壬辰癸巳年間에는 戰船의 수가 200隻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부족하였는데, 오늘의 戰船의 수는 60隻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加船之策’을 생각할 때에 거북선은 板屋船과 다한가지로 ‘射夫와 櫓軍’의 수가 125명이 넘어야 하므로 해결책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臣은 항상 櫓軍의 수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왔으며, 1599년(왜란이 끝난 다음 해)에 순찰사 韓孝純의 軍官으로서 戰船을 監造할 때에 板屋船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별도의 배를 만들어(非板屋 非龜船 別樣造作) 칼과 창을 많이 꽂아 鎗船이라 이름하고 櫓軍 42명으로 배를 짓게 하였더니 배는 마치 나르는듯 빨랐습니다(其疾如飛).

3. 그러나 그 후는 昇平세상이 와서 한번도 싸움에 써보지 못하고 여러해를 버려두니 그 배는 낡아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저의 身分이 천하고 말도 微微한 처지라, 사람들이 取實하지 아니하여 다시 만들지 아니하고 그 만드는 방법마저 버렸어옵니다.
4. 만약에 다시 이 鎗船을 만들어서 여러 장수에게 맡겨준다면 배의 수는 두배가 될 것이오며 射夫와 櫓軍의 수도 더 配定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上疏文의 내용은 마치 진흙을 많이 섞으면 연탄 한개로 두개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과도 같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그의 뜻을 받아들였으며,

조건부로 南海縣令에 임명하였다.

앞에서 말한 제 2의 기록(宣祖의 敎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돌이켜 보건대 南海는 요충지대라 누차 왜적의 침략을 보았다. 적은 海上에서 무절러야지 어찌 陸地에까지 조량하게 할소냐. 그래서 드디어 백만 드는 일을 일으켰도다.
2. 가깝게는 李舜臣의 閑山大捷의 예를 따라 제도는 거북선을 모방하였고(制倣龜船), 멀리는 進甸의 좋은 법규를 본받아 형세는 鷄子보다 빠르도다.
3. 오직 조정의 財力이 극심하게 꺾박하여 조정으로부터의 보조없이 오로지 自力으로서 이루었도다. 네가 고을을 다스린지 겨우 10개월만에 工役을 끝내어 3隻을 만들었다니 이미 직책을 다한 실효가 아닌가. 어찌 상을 주는 특전이 없을소냐? 따라서 너에게 通政大夫를 가사하고 또 南海縣令에 계속해서 머물게 한다.

이 敎書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羅大用은 自身の 上疏文을 통해 다음해인 1607년 경에 南海縣令에 임명되었다.
2.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였으므로 그는 그가 上疏한 내용대로의 배 3隻을 만들어야 했다.
3. 그 결과로서 그가 南海縣令에 留任케 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그의 배가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조없이 自力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제 3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上記敎書의 내용을 약간 잘못 적은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羅大用以縣令 當 壬辰亂 從李忠武舜臣 粧龜船三隻」

이라는 기록이며, 上記敎書에는 年月日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후에 그것이 倭亂中에 내려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즉 倭亂當時 羅大用은 李舜臣의 軍官이었음에도 縣令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粧龜船三隻」의 내용도 敎書의 내용을 그렇게 적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북선을 모방한 이상한 배

3雙'이라 적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羅大用은 거북선의 제조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板屋般은 대단히 우수한 軍般이었으나 높은 樓臺가 있는 敵般에 접근할 경우에는 甲板이 그 樓臺로부터의 射擊에 노출된다는 취약점이 있었으므로 다만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

운 것이 거북선이다. 따라서 거북선에 대하여 일반적 의미의 발명자란 없는 것이며,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改造를 통해서 實戰에서 그토록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海戰의 利器로 바꿀 수 있었던 李舜臣의 위대함이 또한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